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성남일보

snilbo.co.kr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두리인력파출부

www.dooryjob.com
1566-8814

제48호 |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2014년 1월 5일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성남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 주요 프로필
- 전 성남부시장
- 행안부 지역발전과장
-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2013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성남일보

2000년 7월 6일 창간된 성남일보가 창간 13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주간 성남일보'를 인터넷 '성남일보'와 연동해 독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발행해 오던 오프라인 성남일보 자매지 '뉴스데이'를 '주간 성남일보'로 제호를 변경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성남일보는 제왕적 지방자치 권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새로운 장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제보 및 구독 문의 031-721-9922



30·40대女 밤길안전 '적신호'

법무법인 디지털 설문조사 드러나... 91.7%불안감

성남시에 거주하는 30, 40대 여성들은 야간귀가 길 보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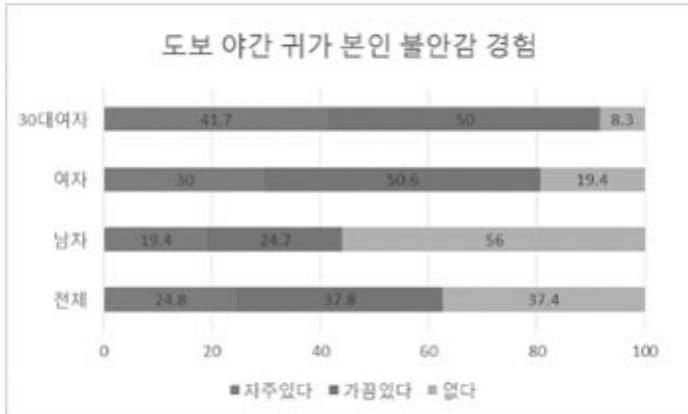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디지털(대표변호사 장영하)이 국토연구원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방재?안전공간 구현과 국민안전네비 보급 정책 연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보에 의한 야간귀가 안전 심리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의 91.7%는 야간귀가 길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주 느끼는 비율도 41.7%나 되었다.

40대 여성의 경우 86.6%가 야간귀가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 늦게 귀가 하는 경우 96.6%나 되는 40대 여성이 가족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성남시의 지역별 야간귀가 불안감 분석 결과, 단독주택과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구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귀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은 중원 69.2% > 수정 63.8% > 분당 58.9%로서 중원구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를 보면 '천당 아래 분당' 또는 '천당 옆에 분당'이란 표현을 듣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의 대명사인 분당신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법무법인 디지털에서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층화표집에 의해 성남시민 1,029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3% 포인트이다.

이 연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디지털 부설 디지털융합연구소 권준철 소장은 "기존도시의 구조가 좁은 골목길이 많고 심야시간에는 근린상가나 골목상점들이 문을 닫으면 오로지 방법등에 의존하는 형태라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조차도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적 현상이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이것도 시민들에게는 안심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시민안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디지털에서는 로펌의 일반적인 소송, 공증 업무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에서 IT융합 법제도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분야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참여가 편리한 스마트 안전공간을 만들고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일명 '국민안전네비' 보급 정책과 관련법 제도이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부지 선정 문제 있다

자유민주국민운동·성남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성남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충탑 이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현충탑 이전 부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성남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는 현충탑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공론화 하고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5년 민선시장 체제 출범후 현충탑 이전이 급물살을 탔던 것이 사실로 그러나 현충탑 적합 부지를 찾지 못해 장기간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성남시가 현충탑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현재 성남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현충탑 이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이라며 "현충탑을 이전하려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277번지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판교~구리간 고속화도로 2개 구간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24시간 내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현충탑으로서의 입지중 최악"이라고

입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때아닌 '호국 보훈도시'를 표방하면 부지의 타당성 보다는 이전에만 관심이 있는 듯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내년 예산에 현충탑 제작 설치비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성남시가 현충탑 이전을 강행한다면 또다른 특혜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남시가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 이곳에 현충탑을 옮기려는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인 사유지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성남시는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충탑 이전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현충탑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공론화 하고 적정성을 재검토해 호국선열들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부지를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성남시의회는 현충탑 이전 부지 선정에 적정성과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을 삭감 또는 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교밸리, 한국형 W밸리 구축 '시급'

판교-기흥-이천 연계한 국가SW-SoC융합클러스터 지정 필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4일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한 '한국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방안 :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세계적인 ICT 창조경

제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클러스터로 확장된 '(가칭)한국형 W밸리'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W'의 의미는 판교를 중심으로 주요 클러스터를 연계했을 때 나타나는 지리적

형태로 World-Class Cluster를 지향하고자 하는 복합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한국형 W밸리' 구축을 위해 ▲판교-기흥-이천을 연계한 국가SW-SoC융합클러스터 지정 ▲ICT 창조경제클러스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 SW-ICT Complex(복합관)' 건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은 "현재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ICT-SW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내 혁신클러스터를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 진흥원도 도내 주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전 국회의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이윤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남규)을 방문해 노인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1백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윤수 전 의원은 평소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 온 지역의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었다며 적은 성금이지만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선행에 김남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



역사회 노인복지의 중추적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몸소 기부에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파워인터뷰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신뢰, 화합, 희망의 시정 펼치겠다”

성남시 정치과잉의 대표적 도시... ‘모라토리엄’ 별도 입장 밝힐 것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56)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전 부시장은 정치과잉의 대표적 도시인 성남이 이제 더 이상 정치지향적 시장이 아니라 행정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내년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현재 소감은.

공직을 천직이라 여기다 비장한 각오로 사직을 하고 지난 19일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성남은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에 초석을 놓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폐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과도하게 정치에 편향되어 부작용이 양산됐고 그 대표적 지역으로 성남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치과잉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은 이제 정치인 보다는 행정전문가가 정책으로 신뢰, 화합, 희망의 시정을 이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전문가로서 성남시가 처한 여러 현안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신,구시가지간 지역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 재개발, 리모델링,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 성남 부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성남시 행정에 대한 견해는.

한 두 사람의 역량 보다는 조직원 전체, 즉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조직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큰 그림과 정책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은 행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보장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수준 높고 잠재력 있는 시민의식, 인구 백만명의 조 단위 예산 도시... 여기에 시민봉사 조직으로서 단단한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성남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불화설이 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하게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식의 출마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성남과 성남시민에 대한 애정, 성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 모델로 만들고 싶은 욕망, 새로운 리더십으로 비정치인인 행정 전문가가 나서서 불신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저를 출마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 성남시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있다면.

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세계적 IT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핵심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문화서비스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문화와 선진국의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테크노밸리에 문화밸리를 형성시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6차산업의 집중육성으로 경제형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성남의 특성을 십분활용해 복지와 산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경제형 순환형 복지 모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생존위주의 복지에서 일자리창출·레저·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민간자원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형성해 대한민국의 모범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남시의 현안인 재개발, 리모델링, 교육지원 방안, 지역경제의 상향적 불균형 해소 등은 제가 성남시 부시장 재임시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지 10일만에 모라토리엄을 선

언할 정도로 시 재정상황이 나빴는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 습니다.

성남시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생각입니다.

▷▶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중앙정치의 예측으로 지방이 중앙 대리전의 전장화가 된다는 정쟁위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자치가 되어야 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간 정치과잉의 대표적 지역으로 성남이 인식되어 왔 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뚜벅뚜벅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간다는 자세로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남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성남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이 발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의 도시 성남이 세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상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하고 화합하며 희망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실체 드러나나?

성남미래연구소 토론회 개최... '성남시 브랜드 가치 떨어 뜨린 것'

성남시가 발표한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종결 선언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 모라토리엄의 실체 즉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및 종결의 의미를 평가해보자는 취지에서 성남미래연구소(이사장 서효원)가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진행은 성남미래연구소 서효원 이사장이 사회로 이상운 자치경영정보원 부원장, 박준수 순천향대 교수, 최인식 성남시민협 공동대표, 최중현 세립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시가 시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린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운 부원장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태나,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채무 지불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와 이후 시 재정 통계자료(2009-2012)를 제시하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지불 유예 직후년도에도 상당 금액의 집행잔액(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된 판교 특별회계 세출 결과에서도 2011년에 1,487억원이 남았다는 점 ▲ 당시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지에서 855억 흑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박준수 교수는 "모라토리엄은 전쟁 등 국가의 위급 상황에서만 선언하는 것인데, 시의 당시 사정이 과연 그러한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설사 시가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습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인데, 과연 당시 시정이 그 만큼의 아픈 과정을 감내하고 종결 선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최인식 위원장도 "모라토리엄 선언과 올 해 7월 이의 종결 선언 소식을 접하며, 자신은 왜 시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신은 오는 19일 모라 시장 장이 서는 날,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인 최중현 상무는 "판교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면에서 검증된 사업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의 자산 구성과 재정 상태로는 충분히 채무 상황이 가능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 상무는 이와 관련 이번 에 "시가 채무 5,000억원 중 1,16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상환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람들 줄줄이 도전장

64 지방선거 잇따라 '출사표'... 이시장 리더십 한계 지적도



내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 사람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도전장을 내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박영숙 전 분당구청장과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출범 후 분당구 보건소장을 거쳐 분당구청장에 임명됐던 박영숙 전 분당구청장은 지난 10월 2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공식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 전 구청장은 자신의 저

서 '조각 보자기'에서 "나는 다양한 성남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며 "작은 실천으로 하나 된 성남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 1월 13일 성남부시장으로 부임해 지난 7월 1일 안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도 오는 19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박 전 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 사람이 그리워진다

다"라고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을 역임한 박광순 전 위원장도 지난 10일 새누리당에 평당원으로 입당해 지역 정가에 입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후 나름대로 성공한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힘을 보탤으나 한계를 느껴 새누리당에 평당원으로 입당했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할 일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람들이 줄줄이 내년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이재명 시장의 정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 3년간의 시 행정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리실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성남시 주택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간전문가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돼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센터 '가동'

성남시는 지은 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10만 3,912가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성남시청 5층에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16일 오후 성남시장,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국회의원, 시·도의원, 리모델링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한누



분당차병원, 국제 심포지움 '성료'

웨이크포레스트그룹 공동연구 및 차움설립계약진행

분당차병원은 지난 12일 분당차병원 대강당에서 '재생의학 및 암 연구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병원과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차병원 그룹 차광렬 총괄회장, 웨이크 포레스트 그룹 에릭 톰린슨(Eric Tomlinson) 최고혁신책임자(CIO), 세계 최고 석학인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의 안토니 아탈라 박사 등을 비롯해 의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생의학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 안토니 아탈라(Anthony Atala) 소장과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 James J.Yoo 교수, Shay Soker 교수가 재생의학 연구의 현황과 응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차병원 그룹 김민영 교수, 차의과학대학 문지숙 교수가 줄기세포

를 이용한 재생의학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 안토니 아탈라 소장은 심포지움을 통해 "재생의학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미래의료환경을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훈상 분당차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저명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재생의학과 암 연구, 로봇수술 분야에서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웨이크 포레스트 의료 그룹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임상, 활발한 학술교류 등으로 암의 치료뿐 아니라 암 및 질병 예방분야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복지·문화예산 개선 '시급'

산성복지포럼, 정책토론회서 제기... 지방선거 앞둔 선심예산 편성 지향해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복지·문화 예산 편성이 선심성 예산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산성복지포럼(상임대표 신상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성남시 복지·문화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문화예술분야 주제발제를 맡은 정용한 시의원은 "3년 동안 예산을 쓰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분별히 행사를 하다 보니 행사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유사 행사가 많다. 명칭만 다를 뿐 행사가 다 똑같다. 눈요기용 행사다. 무명단체의 행사 지원도 문제다"라며 "민선5기 들어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성남시가 3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것을 행사성, 보이지 않은 전시용, 단체에게 예산을 올려 주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완정 시의원은 "관선시장, 민선시장 통틀어 과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에 접근한 사람이 있었나 볼 때 답은 절대 아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정만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2008, 2009년에는 전체 총결산대비 1% 미만에 해당했는데 민선 5기 들어서는 1.2%를 축적성 경비



로 나가고 있다. 민선 4기에 비해 30% 늘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행사는 없었다"고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남궁원 산성복지포럼 공동대표도 "문화 예술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 있게 가야하고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향 지휘자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트센터 사장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역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성남시 문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남궁원 공동대표는 "성남은 다 빌려다 쓰는 예술의 장"이라며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고 문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사회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한성심 시의원은 "노인 소일거리 등의 사업은 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는데 예산이 통과 됐는데 이러한 돈이 현장에서 과연 필요하냐. 이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이 316억이 늘었다. 무상급식은 복지포폴리즘으로 본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규 신구대 겸임교수는 "금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상당히 복지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혀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성남시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성남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의회에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보고 복지계획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면 시장 마음대로 선심성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며 "성남시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많고 전혀 연계 선상에 있는 예산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춘모 경민대 교수도 "복지예산 분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설 인프라 구축이 년차계획에 의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성 'F학점'

정기영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무인정산소 직원 배치 요구

성남실내체육관을 비롯한 탄천종합운동장내 실내테니스장, 노외주차장 무인정산기 등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정기영 의원(정자 1,2, 금곡, 구미1동)은 "성남실내체육관 장애인화장실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지적과 함께 "탄천종합운동장내 실내테니스장에 경사로 또는 리프트시설이 없어 장애인 테니스 선수가 이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탄천종합운동장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탈의실이 지하 2층에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과 이를 1층으로 옮겨 남녀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시 관내 노외주차장 중 8개소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에 대해 "일반이용객과

관리주체가 편리함은 있지만, 정작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감면 차량이 이용할 때는 직원을 호출해 요금 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내체육관 장애인화장실과 실내테니스장, 수영장에 탈의실 설치를 약속했고,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8개소에 기존 근무인력 3명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근무자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상공대상 시상식 '성료'

성남상공회의소, 이흥구 한글과컴퓨터 대표 등 5명 시상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변봉덕)는 지난달 28일 오후 상의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성남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성남상공대상 시상식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남지역 회원업체 CEO와 임직원 그리고 공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경영의욕 고취 및 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성남상공회의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상공대상 시상식에는 성남시 이한규 부시장,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장과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원장 가천대학교 송태수 교수)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 기업경영대상 (주)한글과컴퓨터 이흥구 대표이사 ▲ 노사협력대상 삼영전자공업(주) 이천기 노조위원장 ▲ 기술품질대상 영인기술(주) 윤성수 사장 ▲ 수출기여대상 팍컴코리아(주) 황철원 해외영업부장 ▲ 행정지원대상 성남시청 문익수 지방공업주사보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부 부문별 수상자 시상 후 2부에서는 만찬과 함께 공연(퓨전국악그룹(퀸)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변봉덕 회장은 "경영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기업인들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서서 반드시 목표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의정활동 주력할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감사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난 8일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사교과서, 송계문 등 주요 사회현안에 있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는 사학법인

의 법적 의무, 대학등록금 재정 문제, 경제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는 항상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을지대 박현춘씨,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수상

을지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과정 박현춘(2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씨는 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료패널 연구자료를 활용해 '소득수준별 가구 의료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에서 국내 가구에서 소득수준별로 의료비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소득수준 ▲성별 ▲의료급여수급과 건강보험가입 여부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 보도

이재명 시장 본보 상대 1천만원 손해 청구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사안 아니다’ 성남시, 중재위 반론보도 중재 거부



성남시와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성남시가 받아 들이지 않아 중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중재심판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중재위는 성남일보가 지난 10월

15일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기사는 성남시가 청구한 정정보도 대상의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위는 이날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날 중재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중재 결정은 불성립 됐으며 성남시는 법원을 통해 1천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언론중재위 중재와 관련, 성남일보는 성남시의 입장을 받아 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중재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금물살’

성남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성남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프로축구 성남 일화를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명(민주 15명, 새누리 4명, 무소속 1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민구단 창단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선 11월 2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 4명 심사보류, 민주당 4명 원안 가결, 새누리당 1명 기권으로 이 안건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30일 완전 개통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이 착공 11년 만에 전 구간 완전 개통된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은 지난 2002년 착공해 2007년 오리~죽전(1.8km), 2011년 죽전~기흥(5.1km), 2012년 기흥~망포(7.4km), 왕십리~선릉(6.8km) 구간이 단계별로 개통됐

으며, 지난달 30일 망포~수원(5.2km) 구간 개통돼 수원에 왕십리까지 총 19.5km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한편, 개통식은 29일 오후 3시 수원올림픽공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성남프로축구단 시민주 공모 사전선거운동 ‘의혹’

신영수 전 의원, 보도자료 통해 비판...시의회 조례안 통과 전 행정 조직 통해 모집

성남시가 행정 기관을 동원해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공모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수정)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FC 시민주 공모는 시민화합을 위한 창단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성남시가 현재 행정기관·조직, 관변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가 현재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년 성남FC 지원예산으로 편성돼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또 “앞으로 시민주 공모 시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주 공모 명칭 역시 연회원제 모집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란 가중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시민주 공모와 기업 후원도 좋지만, 성남시는 모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줄인 예산을 생활체육분야에 투자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민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1일 창단 후 공식 시민주 발행 때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주는 주당 1만원으로, 약 10~3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성남중원서, 한지능력시험 전원 합격 ‘화제’

성남중원경찰서 112타격대는 지난달 23일 실시된 제63회 한지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해 4급 1명, 5급 2명 등 응시자 9명 전원이 시험에 합격해 화제.

자격증 취득은 자기계발, 전역 후 대학 평가 및 취직시 가산점 부여의 혜택 등을 위해 대원들의 공감으로 한자자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기자 회견문 성남시는 현충탑 이전 부지 재검토하라!

성남시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추양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호국 부흥의 장이 될 성남시 현충탑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4년 6월 건립된 수정구 태평동의 현 현충탑은 건립된지 40년 가까이 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교통불편 및 접근성 등이 떨어져 꾸준히 이전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지난 1995년 민선시장 체제 출범후 현충탑 이전이 금물살을 뚫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충탑 부지로서의 적합부지를 찾지 못해 장기간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남시가 현충탑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성남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전 부지는 현충탑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는 것이 현지 답사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성남시가 현충탑을 이전하려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277번지는 분당 ~ 수서간 고속화 도로와 판교 ~ 구리간 고속화 도로 2개 구간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24시간 내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현충탑으로서의 입지중 최악이다. 어느 도시에 이런 위치에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도시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지역으로 현충탑을 이전한다면 호국선열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호국선열의 정신을 훼손하고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때마침 ‘호국 보훈도시’를 표방하면 부지의 타당성 보다는 이전에만 관심이 있는 듯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내년 예산에 현충탑 제작 설치비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만일 성남시가 현충탑 이전을 강행한다면 또다른 특혜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남시가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 이곳에 현충탑을 옮기려는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인 사유지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같은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충탑 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남시는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충탑 이전을 줄속으로 하지 말고 호국선열들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3의 부지를 모색해 현충탑 이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의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또다른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성남시의회는 현충탑 이전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억원의 예산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1. 만일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이전 철회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13년 11월 18일 자유민주국민운동 ·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자유민주국민운동, 중복적결 성남시민대회 '성료'

모란장입구서 집회 개최... 모라토orium 국민감사청구인단서명도 전개

자유민주국민운동(최인식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어 24일 오후 모란시장 입구에서 제4차 중복적결 성남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 8월 15일 1차 대회를 가진 후 처음으로 모란역에서 개최한 행사로 모란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홍보전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는 북한 장성택 처형으로 북의 세습 독재의 포악성과 도발위험성을 폭로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orium 선언 정



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인단 서명 운동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모란장이 열리는 날마다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분당을 장영하 체제 '시동'

임시대의원대회 '성료'... 정대철 상임고문 등 3백여명 참석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장영하 변호사)는 11일 오후 분당구 구미1동 주민

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의원과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

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장 위원장의 분당을 지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정대철 상임고문, 이석현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분당을 김창호 분당갑지역위원장, 정환석 중원구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영하 위원장은 "분당을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당원부터 행복하고 당원이 존경받을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당원과 함께 전국 최고의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예술 지원 '강화'

경기과기원 - 성남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첨단R&D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정택)과 성남문화재단(대표 이사 신선희)은 지난 20일 판교 글로벌R&D센터 대회의실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사업 연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문화재단과 작년 5월부터 매달 2회씩 사랑방정오콘서트를 공동주관하여 개최한 것과 관련해 교류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두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은 밸리내 문화행사를 위해 ▲문

화 행사 공동개최 및 기업문화예술활동 지원, ▲입주기업 사내 동호회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 ▲임직원 대상 문화·공연 정보 제공 및 사업 홍보 협력, ▲예술·문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문화사업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지원 및 상호간 사업 홍보를 협력하여 체계적인 업무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택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성남문화재단과의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입주기업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러시아 아그로상생 MOU 체결

분당제생병원(원장 정봉섭)은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 강화와 교류를 위해 지난 13일 러시아 연해주(유)아그로 상생(대표 강명순)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과 아그로 상생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진료 의료△러시아 의료봉사를 위한 의료진 파견△국제진료 상호 지원△환자 이송△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아그로상생의 제안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산하 러시아인 농장주와 우수 직원의 종합건강검진이 이루어 졌으며 러시아 국제진료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정봉섭 병원장은 "몽골에 이어 러시아 국제진료에 힘써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으며 진심을 다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그로 상생 강명순 대표는 "러시아에서 한국병원 붐이 일고 있으며 일본계

병원도 진출해 있다"며 "지역의 복지와 포상 차원의 검진이었지만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아그로 상생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해외농업 자원개발회사로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에 소재해 있으며 직원 수는 325명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사회복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광활한 연해주 농지를 개발해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며, 미래의 식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해주 전역에 9개 농장 및 대형 물류 시설, 가공시설을 설립하여 대규모 복합영농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그로 상생은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농장 경영에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통해 상생과 화합의 영농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복합 영농으로 현지에서 고용인력 확대 및 물류 증가, 부가 산업 동반 발전 등을 이루며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성남시 지역새마을금고, 가정용 소화기 전달



통해 65세 이상 홀몸 노인 택 1,000가구에 가정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이번 소화기는 성남지역 내 동부(이사장·김상현), 북부(이사장·이종식), 수정(이사장·조영이), 제일(이사장·정광욱), 낙원(이사장·백승호), 중원(이사장·황순환), 중부(이사장·민철기) 등 7곳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상현 성남시지역새마을금고 협의회장은 "홀몸 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이웃을 돕는 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역새마을금고(협의회장·김상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홀몸노인 택에 전달 가정용 소화기 1,000개를 성남시에 기탁했다.

성남시는 16일 오전 '새마을금고 협의회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각 동 주민센터를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주간 성남일보

발행·편집인: 모동희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경기 다00907
홈페이지: www.snillbo.co.kr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9-4 광장빌딩 505호
구독·광고 문의: 031-721-9922
메일: webmaster@snillbo.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논문 표절 의혹 '촉구'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당 방문... 당 차원 조치 '촉구'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20여개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한종훈, 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20일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규명 촉구'의 건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지난 9월 13일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산하의 연구진실성검증

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제목: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검증한 결과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면서 "언론에 의해 논문표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또 "이재명 시장의 해당 석사논문이 서론

부터 결론까지 98%가 표절로 의심되며,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50% 이상의 표절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검증은 포기했을 정도로 그냥 통으로 베낀 수준의 논문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라니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이번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번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은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성남 시민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민협은 지난 11일 성남시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가천대를 방문해 가천대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백모 비서 파면하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보도자료 통해 파면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백모씨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백모 비서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장 백모 비서관은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패 등으로 중원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성남시를 망신시킨 중차대한 사건"이

라며 "시장은 즉시 시민에게 대신인 사과를 하여야 하며, 즉시 파면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100만 시민을 망신시키고 2500여 공직자들을 욕되게 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백모 비서는 이재명 시장을 보좌하고 대신하는 공직자로서 한 번도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했다면 시장이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택시 폭행이 논란을 빚자 지난 16일 수행비서 백모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화원, 새해 천재봉행 연다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갑오년 신년을 맞아 오는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 20분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2014 새해, 천재봉행'을 개최한다.

이번 천재봉행은 계사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시민의 화합과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축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날 진행은 식전행사로 갑오년 '기원무',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동방의 아침', 신년 축시 '해 뜨는 순간에' (한춘섭 작시) 낭송, 주행사로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우리 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다.

성명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해명하라!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한종훈, 이하 성남시민협)는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당사자 해명과 사과 등이 포함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1. 지난 9월 13일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산하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제목: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검증한 결과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문표절'은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학문적 지식을 훔쳐서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이재명 시장의 해당 석사논문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98%가 표절로 의심되며,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50% 이상의 표절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검증은 포기했을 정도로 그냥 통으로 베낀 수준의 논문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라니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표절 시장'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닉네임'으로 불린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

2. 이에 성남시민협은 먼저 '표절 시장'을 가진 성남시민이라는 수치는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 지난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성남시의 수장이 되었기 때

문이다.

3. 따라서 우리 성남시민협은 이번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우선 표절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측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위해서는 언론에 의해 논문표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석사학위 논문수여자인 가천대(당시 경원대)측도 엄정한 진상 조사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에 표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성남시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5. 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과연 어디에서 성남시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인 성남지역 청소년들에게 어찌 정직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시민협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번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은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성남시민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가천대 항의 방문,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등을 포함해 실제적 진실 규명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3. 12. 11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